

#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박영화 고재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는 120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상호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부부들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커플자료 분석에 적합한 모형인 APIM(Kenny, 1996)에 근거하여 부부들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이 자신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효과(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로 첫째, 부부들의 자존감의 상호성은 낮은 반면, 부부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결혼만족도의 상호성은 매우 높았다. 세 가지 갈등대처행동 중에서는 갈등무시 행동에서만 상호성이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 자존감은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의 크기에서 상대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갈등 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은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그 크기에서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어 : 결혼만족도, 상호성,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APIM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부간 갈등은 결혼생활에서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예 : Noller & Feeney, 1998). 그 이유로는 첫째, 부부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Kelley, 1983). 둘째, 부부는 각자 양립되기 힘든 욕구, 관심사, 목표 등을 지닌 경우가 많다(Peterson, 1983). 셋째, 부부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하였을 때 부부간 갈등의 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Yelsma, 1984).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간 갈등의 크기보다는 갈등에 대한 부부의 생각이나 반응이 결혼의 질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다(Bodenmann,

박영화는 경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고재홍은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본 연구논문은 2004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고재홍,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심리학 전공)

Email : kopsy@kyungnam.ac.kr

Kaiser, Hahlweg, & Fehm-Wolfsdorf, 1998; Bradbury & Fincham, 1989; Ridley, Wilhelm, & Surra, 2001; Turgeon, Julien, & Dion, 1998). 국내에서도 1970년대 말부터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차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환경 변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부부 개인의 내적 변인들(성격, 정서, 인지 등)뿐만 아니라 역할 기대, 의사소통, 애정 표현방식 등과 같은 상호작용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부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쌍 보다는 개별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부간의 문제는 한 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 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갈등대처 방식과의 결혼만족도를 부부 각자의 입장에서 연구 할 것이 아니라 부부의 상호작용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점차 부부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변인들을 다루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류의 연구들(예 : 전귀연 · 구순주 · 박경란, 1998; Acitelli, Kenny, & Weiner, 2001; Deal, Halverson, & Wampler, 1999;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은 개별 기혼자보다는 부부쌍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쌍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가 서로 상관된 쌍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에서는 부부를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부부 중 한쪽의 특정 변인(예 : 남편의 특징)이 다른 쪽의 결과(예 :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부와 같은 커플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부분의 자료(예 : 결혼만족도, 나이)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자료이기 때문에 두 사람(예 :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각각의 독립적(independent) 자료 형태로 분석하면, 제 1종 오류(type I error)를 크게 범하게 된다(Kenny, 1996 참조). 제 1종 오류의 증가로 인한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나 연애크플과 같은 상호의존적 자료를 Kenny(1996)의 APIM(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별히 고안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료(예 : 결혼만족도)가 실제로 상호의존적 자료인지를 살펴보고, 이런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른 부부 만족도 자료가 상호 의존적 자료일 가능성을 상호성(reciprocity) 개념으로 살펴본 다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변인들을 살펴 볼 것이다.

#### 부부의 상호성

일반적으로 상호성이란 이자관계에서 한 쪽의 반응에 따라 다른 쪽이 대응함을 의미한다. 이 때 반응은 다양한 것으로서 감정(예 : 호감), 행동(예 : 도움), 지각(예 : 성격 판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이자간의 상호성은 행동뿐만 아니라 지각과 감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자관계(dyad relation)에서 한 사람(A)이 상대방(B)을 좋아할 때, 상대방(B)도 그 사람(A)을 좋아하는 현상을 호감의 상호성(reciprocity of attraction 혹은 reciprocity of liking)이라 부른다.

Kenny와 Nasby(1980)는 사회관계 모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친밀관계(예 : 친구)에서 호감의 상호성을 다룬 여러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첫째 호감의 상호성이 존재하고 둘째,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호감의 상호성 크기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결혼적응의 크기를 살펴본 Beach, Katz, Kim, 및 Brody(2003)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적응도는 상호적임을 보여주었다. 부부는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이고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긴 관계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배우자가 자신과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러워 하면 자신도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러워 하는 결혼만족도의 상호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호성은 호감뿐만 아니라 공격행동이나 도움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교환에서도 자주 나타난다(고재홍, 1997 참조).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에 대처하는 부부들의 행동에서도 상호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Tedeschi, Gaes, 및 Rivera(1977)는 행동의 상호성을 정적 상호성과 부적 상호성으로 구분하였다. 정적 상호성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득을 주었다면 그 상대방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부적 상호성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상대방에게 그만큼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고재홍(1997)은 교환

관계에서 정적 상호성(예 : 보은)에 비해 부적 상호성(예 : 보복)이 더 크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부적 상호성이 정적 상호성에 비해 우세하다면, 갈등에 대처하는 부부들의 행동들 중 긍정적 행동(예 : 양보)보다는 부정적 행동(예 : 비난과 공격)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부부간에는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상호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는 첫째, 부부는 만나기 이전부터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부부는 공통문명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공통적으로 가족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셋째, 부부 중 한사람의 만족도는 자신의 특성(예 : 성격) 뿐만 아니라 상대방 특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결혼만족도

Rice(1979)는 결혼만족도란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욕구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며, 부부간의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보이는 실제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Hawkins(1968)는 결혼만족이란 결혼 생활의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는 일종의 태도로서 부부를 비롯한 가족 간의 애정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및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및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용, 결혼안정성, 결혼행복, 결혼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Acitelli, Douvan, & Veroff, 1993; Beach et al., 2003).

결혼만족도는 매우 복잡한 구성개념으로, 여러 연구들(예 : 권정혜, 2000; 이경성·한덕웅, 2001; Spanier, 1976)에서도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요인들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Spanier(1976)는 결혼만족(이들은 결혼적용이라 부름)을 부부간 의견일치, 관계만족, 응집력, 및 애정표현 등의 4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경성 등(2001)은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을 통해 결혼만족도가 결혼생활

만족, 애정, 및 개입(commitment)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결혼만족도를 다룬 일부의 연구들(예 : Bradbury & Fincham, 1988;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예 : 가계수입, 결혼방법, 자녀수), 부부 각자의 내외통제성, 성격특성, 교육수준 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또한 일부의 연구들은 배우자의 폭력(이종선·권정혜, 2002) 배우자의 공격성이나 의사소통 양식(이정은·이영호, 2000; Boyd & Roach, 1977)과 같은 배우자의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비교적 최근에는 부부 각자의 개인특성 뿐 아니라 부부의 가치관이나 성격유사성(고재홍·전명진, 2003; Acitelli et al., 2001), 양육방식의 차이(예 : Deal et al., 1999)와 같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적 변인이 부부의 전체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다룬 변인들 중 개인특성에서는 자존감 변인을 선정하였고, 상호작용 변인에서는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의 효과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분석방식으로 재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자존감

Rosenberg(1979)는 자존감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확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교술이 우수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신감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존감을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기평가로 보고, 자기평가는 개인이 그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그의 행동, 능력 그리고 속성을 평정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과정으로 보았다.

Satir(1972)는 부부 각자의 자존감 크기는 의사소통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즉 대체로 자존

감이 낮은 사람은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한다. 반면에 부인의 경우 자존감과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들이 갈등시 사용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과 유사한 유형의 의사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좋지 못한 반응을 나오게 한다. 이런 연쇄반응으로 인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Satir, 1972). 그는 의사소통 체계나 맥락을 바꿈으로서 개인의 자존감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건전한 성격 발달의 기반이 되며,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게 지니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의사소통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부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게 된다는 가정하에 연구하였다. 이들은 의사소통 방식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의사소통 방식을 3가지(상호건설적 방식, 상호회피 방식, 요구-철회방식)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의사소통 방식 중 상호회피 및 요구-철회방식(demand-withdraw pattern)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ensen, 1988; Christensen & Shenk, 1991; Heavey et al., 1993). 여기에서 상호회피 방식이란 배우자 모두 갈등 영역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구-철회 방식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반면 상대방 배우자는 대화를 끝내려고 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 장소를 떠남으로써 대화를 회피하려는 방식을 말한다. Christensen 등(1991)은 요구-철회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결혼의 질과 결과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연구들은 자기의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의사소통 형태를 사용하는 부부가 의사표시를 적게 하는 부부보다 부부간의 만족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확보된 의사소통 통로가 있으며 개방적이고 서로의 감정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 Boyd & Roach, 1977; Christensen et al., 1991).

국내에서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의사소통 유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이정순, 1991), 부부 의사소통 방식과 우울 및 자아감과의 관계(임승락·권정혜, 1998), 부부 의사소통 방식과 특징적 갈등대처 방식과의 관계(장문선·김영환, 2002), 개인특성과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이정은 등, 2000), 의사소통 방식과 부부 폭력간의 관계(이종선·권정혜, 2002) 등이다.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매우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갈등시 사용하는 부부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선정하여 각 의사소통 행동이 남편과 부인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갈등대처방식

갈등대처 방식이란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크게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는 직접적 대처와 자아개념을 위협하는 심리적 갈등이 생길 때 행하는 간접적 혹은 방어적 대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정서중심대처와 문제중심대처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자아방어 기제가 포함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이들 갈등대처방식은 모두 문제해결과 갈등완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지만 그 방법에서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다.

갈등대처방식 중 문제중심대처(problem focused coping)는 갈등을 유발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중심대처(emotion focused coping)는 갈등상황 자체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등상황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무시하거나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추구하거나 종교에 의지하는 것, 외부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것, 자신의 고집대로 해 나가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Lazarus et al, 1984).

부부의 갈등대처 방식은 각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혹은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양희, 1986; Christensen, 1988), 부부 각자가 평소 문체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Boyd & Roach, 1977; Turgeon, et al., 1998). 그러므로 부부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면, 갈등대처방식도 결혼만족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어떤 갈등대처행동이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최근의 부부 갈등과 부부 만족도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 요인들을 선정하여 APIM에서 제시한 분석절차에 따라 자신의 특성의 효과(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주는 영향)와 상대방의 특성의 효과(배우자의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주는 영향)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개인적 특성(예 : 자존감)과 상호작용적 변인(예 :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반드시 남편과 부인 모두의 자료(즉 dyadic data) 형태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커플 자료의 분석은 Kenny(1996)의 APIM모형에서 제안한 분석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커플 자료의 분석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연애크플의 관계만족도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개인적 특징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의 특징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쌍 자료가 아닌 개별 자료의 분석(예 : 박성호, 2001)에서도 부부 각자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자존감

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개인의 자존감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인관계적 특징을 다룬 연구들에서 커플 자료(예 : 각각의 만족감)는 서로 상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자료를 다루는 연구의 분석과는 다른 분석이 요구된다(Kashy & Kenny, 2000; Kenny, Kashy, & Bolger, 1998). 특히 장시간 동안 상호작용이 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의 자료가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고재홍 등, 2003 참조) 자료가 부부의 쌍 단위(남편과 부인 하나의 단위)로 수집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들(예 : 이정은 등, 2000; 전귀연 등, 1998)에서도 부부의 커플 자료가 수집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서도 커플 자료를 독립적 자료로 가정하고 분석하여 제 1종 오류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있다.

부부의 호감이나 결혼만족도와 같은 대부분의 두 사람 변인은 상호 상관된 자료이다. 이런 종류의 자료를 쌍이 아닌 남편과 부인의 개별적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검증에서 제 1종 오류를 심각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처럼 쌍 자료를 독립적인 남편과 부인 등의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생기는 제 1종 오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Kenny(1996)가 제안한 APIM이 적합하다.

또한 커플 자료를 분석하면, 한 개인의 특징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자기효과)도 살펴보아야 한다. APIM 모형에서는 한 연구에서 두 범주의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아내의 높은 자존감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자기효과), 그것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상대방효과). Kenny(1996)는 42쌍의 부부를 연구한 Acitelli 등(1993)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부부 사이의 나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효과는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상대방효과를 추가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부인이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남편의 나이가 적을수록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PIM 모형에 따르면, 커플(dyad) 분석에 있어, 독립 변인의 종류를 세 가지, 즉 커플간(between dyad), 커플 내(within dyad), 및 혼합변인(mixed dyad)로 구분할 수 있다(Kenny, 1988). 커플간 변인은 커플 이자의 값(value)이 동일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첫 자녀가 ‘아들’이면, 두 부모의 값은 모두 같고(예 : 1), 또한 ‘딸’이면, 부모의 값은 모두 같은(예 : -1) 경우이다. 커플내 변인은 두 사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점수의 합은 모든 커플에서 동일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부부들의 가사 분담권, 경제권, 부부의 성과 같은 제로섬(zero-sum) 상황이다. 만약 한 가정의 경제권이 남편에게 많으면 부인은 적고, 반대로 부인에게 많으면 남편이 적은 경우이다. 마지막 유형인 혼합변인은 두 사람의 점수가 독립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남편의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부인의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 때 부부의 자존감은 혼합변인이다. 세 가지 커플변인을 부부간 상관계수로 구분하면,  $r=1.0$ 인 경우는 커플간 변인,  $r=-1.0$ 인 경우는 커플내 변인,  $-1 < r < 1$ 인 경우는 혼합변인이다.

이 모형은 이자 연구와 집단 연구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두 구성원의 값이 구분 가능할 때(예 : 결혼한 부부에서 남편=1, 부인=2)나 두 구성원이 구분되지 않을 때(예 : 동성 친구)등 모든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한 예로서 남편의 부인에 대한 비판과 부인의 남편에 대한 비판은 각각 부인의 우울과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권정혜, 2000). 그러나 남편의 부인에 대한 비판은 부인의 우울뿐만 아니라, 남편 자신의 우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인의 남편에 대한 비판이 부인 자신의 우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PIM에 따르면, 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예 : 비

판)이 상대방의 결과(예 :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라고 부르며, 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actor effect)라 부른다(Kenny, 1996). 이때 커플인 A와 B의 측정변인(예 : 결혼만족도)의 유사성 크기를 상호성(reciprocity) 크기로 볼 수 있다(Kenny & Nasby, 198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PIM 모형에서 제한된 분석은 커플자료의 독립 변인이 혼합변인일 때, 두 사람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주 혹은 연속적 독립 변인 모두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리하는 커플간 변인과 커플내 변인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단지 혼합변인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커플간 및 커플내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전체적 효과만 알 수 있는데 반해, 혼합변인인 경우는 남녀 각각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Kenny & Cook, 1998 참조).

Kenny와 Cook(1998)에 따르면, 커플의 독립변인(예 : 비판)에 따른 커플의 종속변인(예 : 우울)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커플의 독립변인이 혼합변인인 경우는 먼저 커플간의 평균을 원점수로 한 회귀식과 커플내의 차이점수를 원점수로 한 회귀식을 각각 구해야 한다. 이들 두 회귀식으로 부터 비표준화 회귀계수, 즉 커플간 회귀분석에서 나온 비표준화 회귀계수(bb)와 커플내 회귀분석에서 나온 비표준화 회귀계수(bw)로서 다음과 같이 자기와 상대방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Kenny, 1996; Kenny & Cook, 1996).

$$\text{먼저 자기효과} = \frac{b_b + b_w}{2}, \quad \text{상대방효과} = \frac{b_b - b_w}{2}$$

로 구한다. 여기서 bb는 각각 커플의 독립변인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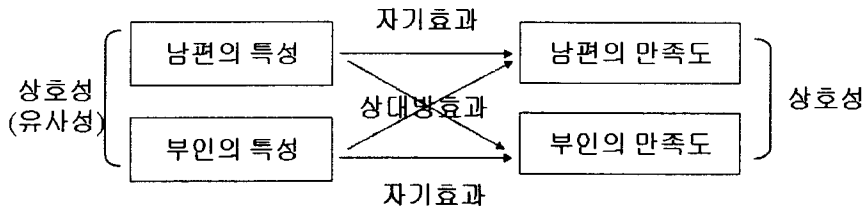


그림 1. 부부 자료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점수로 종속변인의 평균점수를 예언한 회귀분석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bw는 각각 커플의 독립변인의 차이점수로 종속변인의 차이점수를 예언한 회귀분석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다).

한편 이 때의 표준오차는 두 효과를 산출할 때 사용된 오차의 결합 점수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text{연합 표준 오차} = \sqrt{\frac{s_b^2 + s_w^2}{4}}$$

여기서  $s_b^2$ 는 각각 커플의 독립변인의 평균점수로 종속변인의 평균점수를 예언한 회귀분석의 표준오차의 제곱이고,  $s_w^2$ 는 각각 커플의 독립변인의 차이점수로 종속변인의 차이점수를 예언한 회귀분석의 표준오차의 제곱이다.

그런 다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가 각각 0으로부터 이탈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일집단용 t-검증을 해야 한다. 이때 두 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한 t-값과 자유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자기효과의 검증}(t) = \frac{\text{자기효과}}{\text{연합표준오차}}$$

$$\text{상대방효과의 검증}(t) = \frac{\text{상대방효과}}{\text{연합표준오차}}$$

$$\text{자유도 추정값은 } df = \frac{(s_b^2 + s_w^2)^2}{\frac{s_b^2}{df_b} + \frac{s_w^2}{df_w}} \text{ 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부부란 여러 대인관계의 유형 중에서 특별한 대인관계로 형성하고 있는 커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 1) 커플내 회귀계수(bw)를 산출할 때는 IV(예언변수)와 DV(종속변수)의 차이점수가 원점수가 되기 때문에 절편(intercept)이 0인 회귀식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변인이 두 사람의 차이 값이기 때문에 A-B 혹은 B-A에 따라 절편의 부호가 다르게 된다. 즉 절편의 부호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는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Kenny(1996)가 제안한 이차관계 자료분석(dyadic analysis) 방법을 통해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부부에서 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자기효과) 및 배우자에게 미치는 효과(상대방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들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크기를 살펴보고, 둘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부부간 상호성의 크기가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상호성을 산출하여 어떤 하위영역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갈등시 부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의 사용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APIM의 제안에 따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상반기에 경남 마산시, 진해시, 및 창원시에 거주하는 결혼기간 1년 이상 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학교, 교회, 상담소, 및 보건소 등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만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들 배우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배우자와 접촉하여 설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수집된 자료는 285부이었으나 그 중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자료가 수집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0쌍의 부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조사대상 부부들의 결혼 기간은 1년~35년 사이였고, 평균 결혼 기간은 13.9년이었다. 남편의 나이는 30대가 26%, 40대가 57%, 50대가 16%이었고, 부인의 나이는 30대가 41%, 40대가 43%, 50대가 13%이었다.

## 측정도구

### 자존감 척도

부부 각자의 자존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Self-Esteem Questionnaire)를 박미영(1999)이 번안한 10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미영은 4점 척도로 된 원척도의 변별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7점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 $\alpha$ )는 .8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남편의 경우 .78이었으며, 부인의 경우는 .84이었다.

이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 문항(예: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과 부정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5개 문항(예: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의 평균 점수를 자존감의 크기로 정의하였고, 최하 1점에서 최고 7점까지 범위에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 부부간 의사소통 척도

부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제작한 의사소통 패턴 설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를 이정은 등(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5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3가지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건설적 의사소통'으로 '두 사람 모두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려 노력한다', '두 사람이 서로 가능한 해결책과 타협안을 제시한다', '대화한 이후에,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특별히 잘 해 주려고 한다' 등과 같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은 '비난과 공격'으로 '두 사람 모두 서로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죄

를 덮어 씌운다', '남편(부인)을 욕하고, 헐뜯고, 인신공격을 한다', '남편(부인)을 밀치고, 때리고, 찬다' 등과 같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위요인은 '대화회피'로 '두 사람 모두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를 피한다', '대화한 이후에 둘 중 아무도 상대에게 승복하지 않는다' 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부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아주 그렇다(8점)까지의 9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정은 등(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건설적 의사소통 .79, 비난과 공격 .85, 및 대화회피 .67이었다.

### 부부간 갈등대처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시 부부 각자가 어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경구·김고현·조신용·노병래 및 손정락(1994)의 다차원적 대처척도 중 문제중심적 대처 방식에 해당하는 3가지 하위요인들을 측정하였다. 각 하위 요인들의 명칭과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감정표출 행동이다. 이는 갈등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제하지 않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행동이다. 여기에는 '나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나는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등과 같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조건 양보이다. 이는 부부간 갈등시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양보하는 행동들이다. 여기에는 '나는 남편(혹은 부인)에게 양보한다', '나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남편(혹은 부인)의 입장에 따른다' 등과 같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갈등무시 행동이다. 이는 부부간 갈등시 소극적으로 그 갈등을 무시하거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는 문제상황을 피한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그만둔다' 와 같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3점)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경구 등(1994)에 따르면 감정표출 행동(5문항)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83, 무조건 양보행동(5문항)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79, 갈등무시행동(3문항)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감정표출 행동(남편  $\alpha=.89$ , 부인  $\alpha=.90$ ), 무조건 양보행동(남편  $\alpha=.81$ , 부인  $\alpha=.82$ ), 갈등무시행동(남편  $\alpha=.66$ , 부인  $\alpha=.64$ )이었다.

### 결혼만족도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성 등 (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35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 등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결혼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총 10문항으로, 관계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들(예: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산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부간 성적 열정을 포함하는 애정 영역이다.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6문항(예: 내 남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과 애정을 측정하는 7문항(예: 우리 부부는 서로 애정 표현을 잘 하는 편이다, 우리 부부는 신체적 애정 접촉이 별로 없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개입은 현재 부부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4문항(예: 만약 남편과 이혼한다면 자유롭고 흥분할 것이다),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투자한 수준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나는 남편과 헤어져 생활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결혼만족도와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전체 결혼만족도(남편  $\alpha=.96$ , 부인  $\alpha=.96$ ), 결혼생활만족(남편  $\alpha=.90$ , 부인  $\alpha=.90$ ), 애정(남편  $\alpha=.93$ , 부인  $\alpha=.94$ ), 개입(남편  $\alpha=.84$ , 부인  $\alpha=.88$ )이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의 사용, 및 결혼만족도의 상호성은 부부간 상

관계수로 알아보았다. 반면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의 사용 정도는 Kenny(1996)의 APIM에 따르면 모두 혼합변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변인들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한 다음, 단일집단 t 검정으로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만약 특정 효과(예: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경우는 한 사람의 효과를 통제된 후, 다른 사람의 효과를 알아보는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의 자존감이 전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경우, 부인의 자존감크기가 남편의 전체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남편자신의 자존감이 자신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된 후, 부인의 자존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 그 효과의 요약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논문의 간결성을 위해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결혼생활만족도, 애정, 및 개입에 대해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만 산출하였으며, 이를 추가 분석하지는 않았다.

## 결 과

### 기본 통계치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 120쌍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나와 있다.

표 1에서 보듯, 부부들의 여러 측정치 평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부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는 갈등대처행동 중 무조건 양보에서 남편( $M=1.40$ )이 부인( $M=1.24$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9)=1.98$ ,  $p=.05$ . 또한 결혼만족도 중에서는 결혼생활만족만이 남편( $M=5.75$ )이 부인( $M=5.42$ )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19)=3.32$ ,  $p<.05$ . 다른 측정치들에서는 남편과 부인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부부간 상호성

120쌍 부부들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크기를 알아보았다. 상호성 크기는 다음의 표 2에 나와 있다.

표 1. 120쌍 부부의 측정치 평균(괄호 속은 표준편차)

	남편	부인	t
자존감 <sup>a</sup>	5.22(0.86)	5.13(0.99)	0.80
의사소통 <sup>b</sup>			
건설적 의사소통	5.22(1.48)	5.20(1.44)	0.14
비난과 공격	1.41(1.31)	1.60(1.54)	1.22
대화회피	1.98(1.46)	1.89(1.53)	0.62
갈등대처행동 <sup>c</sup>			
감정 표출	1.24( .73)	1.32( .77)	0.78
무조건 양보	1.40( .58)	1.24( .62)	1.98*
갈등무시	0.65( .56)	0.54( .51)	1.83
결혼만족도 <sup>d</sup>			
결혼생활만족	5.75(1.03)	5.42(1.30)	3.32
애정	5.59(1.09)	5.51(1.20)	0.88
개입	5.67( .88)	5.66(1.04)	0.08

a와 d(1-7점), b(0-8점), c(0-3점)임. \*p<.05

표 2.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 만족도의 상호성 크기

	하위영역	상호성의 크기(r)
자존감		.17
의사소통방식	건설적 의사소통	.27*
	비난과 공격	.33*
	대화회피	.45**
갈등대처행동	감정표출	.02
	무조건 양보	-.01
	갈등무시	.19*
결혼만족도	전체 결혼만족도	.63*
	결혼생활만족	.59*
	애정	.62*
	개입	.44*

\*\*p<.01, \*p<.05 (양방검증)

표 3. 부부의 자존감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괄호 속은 추정 df)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결혼만족도(전체)	0.29**(188)	0.18*(188)
결혼생활만족	0.36**(208)	0.18*(208)
애정	0.33**(196)	0.20*(196)
개입	0.18*(223)	0.15*(223)

\*p<.05, \*\*p<.01 (단일집단 t 검증, 일방검증)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간 자존감의 상호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r(118)=.17$ , ns. 그러나 3가지 측면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상호성은 예상대로 유의하였다,  $\bar{r}=.37$ ,  $p<.05$ .<sup>2)</sup> 구체적으로는 대화회피 의사소통( $r=.45$ ), 비난과 공격 의사소통( $r=.33$ ), 건설적 의사소통( $r=.27$ ) 순서이었다.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의 상호성은 예상대로 긍정적 방식(건설적 의사소통)보다는 부정적 방식(비난과 공격 및 대화 회피 의사소통)의 상호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 갈등시 부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갈등대처행동방식은 3가지 측면에서  $r=-.01 \sim .19$ 로 대체로 낮게 나왔으며, 평균 상호성 크기는  $\bar{r}=.01$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부간에는 갈등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갈등의 해결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무시 행동의 상호성은 작았지만 유의하였다,  $r(118)=.19$ ,  $p<.05$ .

한편 부부간 전체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크기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r(118)=.63$ ,  $p<.01$ . 세부적으로는 부부간 애정의 상호성( $r=.62$ )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생활만족의 상호성( $r=.59$ ), 개입의 상호성( $r=.44$ ) 순서이었다.

#### 부부의 자존감 크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 각자의 자존감 크기에 따른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만족도를 전체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하위요인(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및 각 하위요인별 자존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요약은 표 3에 나와 있다.

먼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전체만족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하위요인(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 모두에서 자존감에 따른 자기효과가 유의하였다, 각각  $t(188)=4.45$ ,  $p<.01$ ,  $t(208)=4.76$ ,  $p<.01$ ,  $t(196)=4.52$ ,  $p<.01$ ,  $t(223)=2.72$ ,  $p<.05$ . 이 결과는 자존

2) Kenny와 Winquist(2001)에 따르면, 평균 상관계수의 유의도 검정은  $Z = z \sqrt{(K-3) \cdot N}$  의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z$  는 각 쌍의 상관계수를 변환한 Fisher's z 값의 평균치이고, K는 측정치의 수, N은 커플 쌍의 수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K는 3(요인), N은 120(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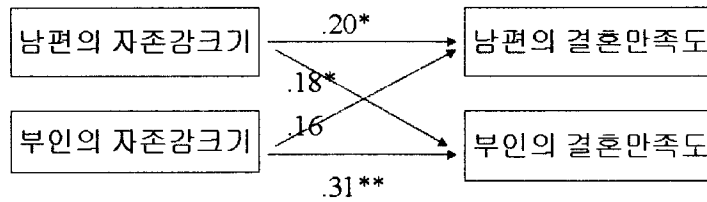


그림 2. 부부의 자존감이 저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수치는  $\beta$ , \*\* $p < .01$ , \* $p < .05$ )

표 4.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괄호 속은 추정  $df$ )

하위 요인	전체 결혼만족		결혼생활만족		애정		개입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건설적 대화	0.29** (207)	0.19* (207)	0.19** (211)	0.05 (211)	0.23** (198)	0.07 (198)	0.22** (217)	0.07* (217)
비난과 공격	-0.31* (215)	-0.14* (215)	-0.27* (218)	-0.08 (218)	-0.20** (198)	-0.10* (204)	-0.20** (222)	-0.08* (222)
대화 회피	-0.23** (223)	-0.11* (223)	-0.04 (220)	0.01 (220)	-0.02 (207)	0.00 (207)	-0.05 (224)	-0.03 (224)

\* $p < .05$ , \*\* $p < .01$  (단일집단  $t$  검증, 일방검증)

감이 높은 부부일수록 자신의 전체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만족도, 애정, 및 개입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과 보다는 작았지만,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t(208)=2.38, p < .05, t(196)=2.68, p < .05, t(223)=2.39, p < .05$ . 이 결과도 역시 자존감이 높은 배우자를 둔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하위 요인 포함)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중 부부의 자존감에 따른 전체결혼만족도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sup>3)</sup>.

구체적으로는 그림 2에서 보듯 남편과 부인 모두의 전체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자존감 크기에 영향을 받았다, 각각  $\beta(\text{남편})=.20, \beta(\text{부인})=.31, ps < .05$ . 그러나 상대방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beta=.18, p < .05$ , 부인의 자존감은 남편의 전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16, ns$ .

그러나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본 상대방효과에

3) 이경성 등(2001)에 따르면, 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은 서로 구분되는 하위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요인들의 상호 상관이 남편(평균상관 .80)과 부인(평균상관 .74)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결과분석은 표에서 모두 제시하였지만, 결과의 해석에서는 주로 "전체 결혼만족도"만으로 한정하였다.

서는 남편의 자존감이 클수록 부인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beta=.18, p < .05$ ), 남편의 자존감은 부인의 애정과 개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각각  $\beta=.14, \beta=-.09, ns$ ). 한편 부인의 자존감은 남편의 결혼생활만족도와 무관하였으나( $\beta=.12, ns$ ), 부인의 자존감은 남편의 애정과 개입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18, \beta=.21, ps < .05$ ).

부부의 3가지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정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 각자의 3가지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크기에 따른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효과를 알아보았다. 3가지 의사소통 방식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듯, 부부의 세 가지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정도는 자신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에서는 상대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먼저 건설적 대화는 자신의 전체 결혼만족도는 물론이고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즉 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t(207)=7.50, t(211)=4.02, t(198)=4.87, t(217)=4.89, ps < .01$ . 이는 건설적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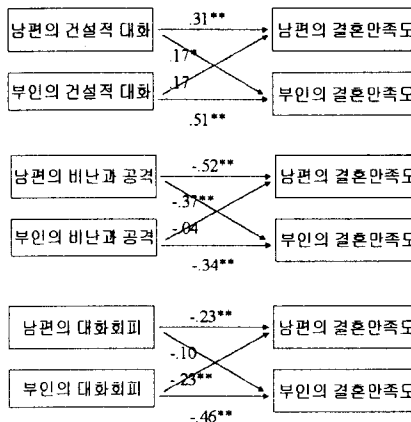


그림 3. 부부의 3가지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크기가 전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수치는 β, \*\* $p < .01$ , \* $p < .05$ )

일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건설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남편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beta = .31, p < .01$ ), 부인이 건설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부인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beta = .51, p < .01$ ).

또한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 사용 정도는 자기효과에 비해 작지만, 상대방의 전체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7) = 3.11, p < .01$ . 상대방 효과 중에서 남편의 건설적 대화사용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beta = .17, p < .05$ ), 부인의 건설적 대화사용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 = .17, ns$ ). 하위요인별 상대방효과는 개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t(217) = 1.89, p < .05$ .

비난과 공격이 포함된 의사소통 사용 정도에서 전체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자기효과가 유의하였다, 각각  $t(215) = 8.27, t(218) = 3.91, t(198) = 3.74, t(222) = 4.00, ps < .01$ . 즉 비난과 공격이 포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비난과 공격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남편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 $\beta = -.52, p < .01$ ), 부인이 비난과 공격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부인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beta = -.34, p < .01$ ). 부부의 비난과 공격적 의사소통 사용크기는 상대방의 전체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5) = 3.76, p < .01$ . 상대방 효과 중에서는 남편의 비난과 공격적 대화사용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beta = -.37, p < .01$ ), 부인의 비난과 공격적 대화사용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 = -.04, ns$ ).

마지막으로 부부의 대화회피는 자신의 전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3) = 6.16, p < .01$ . 즉 대화를 회피할수록 사람일수록 자신도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대화회피가 많을수록,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 $\beta = -.23, p < .01$ ), 부인의 대화회피가 많을수록,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6, p < .01$ ). 그러나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는 자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t(220) = 0.73, t(218) = 0.36, t(224) = 0.96$ , 모두  $ns$ . 부부의 대화회피는 상대방의 전체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3) = 2.84, p < .01$ . 상대방효과 중에서 남편의 대화회피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beta = -.10, ns$ ), 부인의 대화회피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5, p < .01$ ).

요약하면, 부부간 3가지 의사소통 사용 정도는 상대방의 결혼만족도보다 주로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방효과 경우,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대화회피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비난과 공격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부의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괄호 속은 추정  $d$ )

대처 행동	전체 결혼만족		결혼생활만족		애정		개입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무조건 양보	0.33**(164)	0.17(164)	0.33**(197)	0.21*(197)	0.24*(180)	0.11(180)	0.18*(201)	0.12(201)
감정표출	-0.26**(169)	-0.20*(169)	-0.13(196)	-0.14(196)	-0.13(178)	-0.17*(178)	-0.09(200)	0.01(200)
갈등무시	-0.67**(192)	-0.35**(192)	-0.59**(211)	-0.34**(211)	-0.54**(194)	-0.19(194)	-0.34**(215)	-0.22*(215)

\* $p < .05$ , \*\* $p < .01$  (단일집단  $t$  검증, 일방검증)

부부의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 각자의 갈등대처행동의 사용 정도에 따른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전체 및 하위요인(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요약은 표 5에 나와 있다.

먼저 표 5에서 보듯, 부부의 갈등대처행동 중 무조건 양보 행동은 전체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에서 자기효과가 유의하였다, 각각 전체만족도  $t(164)=3.06$ ,  $p < .01$ , 결혼생활만족  $t(197)=2.77$ ,  $p < .01$ , 애정  $t(180)=2.01$ ,  $p < .05$ , 개입  $t(201)=1.75$ ,  $p < .05$ . 한편 무조건 양보 행동은 상대방의 전체 결혼만족도, 애정, 및 개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각각  $t(164)=1.62$ ,  $t(180)=0.89$ ,  $t(201)=1.19$  모두  $ns$ , 결혼생활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7)=1.75$ ,  $p < .05$ . 이는 갈등시 상대방에게 무조건 양보행동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갈등시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과  $t(169)=3.00$ ,  $p < .01$ , 상대방효과  $t(169)=2.36$ ,  $p < .01$ .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감정표출은 남편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beta = -.30$ ,  $p < .01$ ),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beta = -.27$ ,  $p < .01$ ). 한편 부인의 감정표출은 부인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10$ ,  $\beta = -.03$ ,  $ns$ ).

마지막으로 갈등무시 행동도 자신의 전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2)=6.27$ ,  $p < .01$ . 특히 자기효과는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들에서도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갈등 무시행동이 많을수록, 남편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beta = -.25$ ,  $p < .01$ ), 부인의 갈등 무시행동이 많을수록,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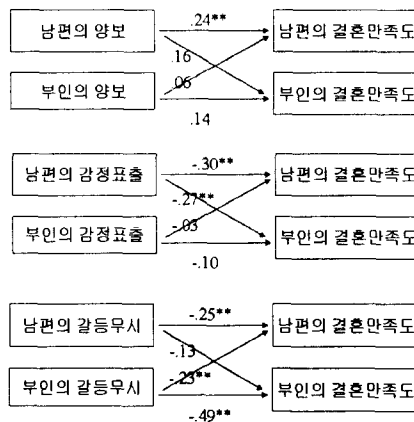


그림 4. 부부의 갈등대처행동이 전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수치는  $\beta$ , \*\* $p < .01$ )

자신의 결혼만족도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9, p < .01$ ).

한편 갈등무시 행동은 자신의 전체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2) = 3.31, p < .01$ . 갈등무시 행동의 상대방효과는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들에서 애정을 제외한 결혼생활만족과 개입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대방효과 중에서는 남편의 갈등무시 행동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beta = -.13, ns$ ), 부인의 갈등무시 행동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3, p < .01$ ).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부들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 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그리고 자존감과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의 사용정도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Kenny(1996)가 제안한 이차관계 분석(dyadic analysis)을 통해 알아 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부간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에서 상호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이경성 등(2001)의 제안에 따라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전체 만족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으로 구분하여 상호성크기를 알아보고자 했다. 둘째, 부부의 자존감 크기와 갈등시 부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Kenny(1996)가 제안한 APIM에 따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에는 자존감과 갈등대처행동에서는 대체로 상호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자존감의 경우, 개인적 특성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갈등대처 행동에서는 부정적 행동인 갈등무시의 경우에서만 약한 상호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정적 상호성보다는 부적 상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예: 고재홍, 1997; Tedeschi et al., 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상호성이 높게 나왔다. 또한 예상대로 부부 결혼

만족도의 상호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애정, 결혼생활만족, 개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의 크기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높다(.57)고 보고한 Beach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자존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하위영역인 결혼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에서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부 중 자존감이 높은 남편과 부인은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과의 크기는 부인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고, 부부의 자존감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대체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변인에 따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Beach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각자의 결혼적응 크기에 따른 우울정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효과 중에서는 여자(부인)가 남자(남편)에 비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인이 남편의 특징(예: 자존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결과는 최근 연애키퍼를 대상으로 연구한 하운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운필(2003)의 연구에서도 연애 중인 커플의 관계만족도는 주로 자신의 자존감크기와 관련되었고, 상대방의 자존감 크기에 의해 관계만족도가 영향 받는 정도는 여자의 경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갈등시 사용하는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부부가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나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비난과 공격이 포함된 의사소통 행동과 대화회피적인 의사소통은 자기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효과도 유의하였다. 상대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난과 공격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남편을 둔 부인은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화 회피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부인을 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가 갈등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예

상과 달리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 이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이정은·이영호, 2000)와 일치한다. 이정은 등(2000)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긍정적 의사소통( $\beta=.12$ )보다는 남편의 긍정적 의사소통( $\beta=.38$ )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손상적 의사소통( $\beta=-.06$ )보다는 남편의 긍정적 의사소통( $\beta=-.50$ )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달리 이들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료를 남편과 부인으로 구분하여(즉 독립된 자료로 가정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APIM에 근거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한 것이다.

특히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상대방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위해서라도 부정적 의사소통(예 : 비난과 공격)보다 긍정적 의사소통(예 : 건설적 대화)의 사용을 증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갈등시 남편의 감정표출 행동은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감정표출 행동은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남편의 갈등무시 행동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의 갈등무시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는 상대방보다는 자신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의 특징이나 행동보다는 자신의 특징이나 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한 결과이다. 갈등대처행동 중에서도 갈등무시 행동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부부가 갈등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과 갈등대처행동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

행연구의 결과(장문선 등, 2002; Bodenmann et al., 1998; Christensen, 1988; Christensen et al., 1991; Heavey et al., 1993)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부부들을 대상으로 1년 전의 결혼적응도와 1년 후의 우울정도간의 관련성을 중단적으로 연구한 Beach 등(2003)의 연구에서도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결혼적응도는 상대방의 우울보다는 자신의 우울과 더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의사소통 방식,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 등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예 : 양육태도, 취미, 가치관)에서 부부 상호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성 크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고재홍 등(2003)은 부부간 성격, 가치관, 취미 등의 프로파일의 일치정도에 따른 부부 결혼만족도를 알아 본 결과, 가치관이 유사한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의 성격프로파일의 일치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이나 갈등대처행동의 유사성(상호성) 크기와 그들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부의 취미생활이나 자녀교육관, 여가시간 활용방법, 노후준비에 관련된 가치관들이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표집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전집의 대표성을 보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들이 부부의 결혼기간에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편( $r=-.13$ )과 부인( $r=-.02$ ) 모두에서 관련이 없었으며, 결혼기간은 세 가지 의사소통방식의 사용과도 무관하였다( $r=-.04 \sim r=.10$ ). 그러나 갈등대처행동에서는 남편은 결혼기간과 특정 대처행동의 사용과는 대체로 무관하였으나, 부인의 경우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감정표출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 p<.05$ ).

또한 여러 부부들의 인구학적 변인들(예 : 연령, 결혼 기간, 학력)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선택한 변인들도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다루어진 것들 중 임의로 선택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부부들의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의 주목적이 결혼만족도를 다룬 기존연구들에서 자주 다룬 변인들을 선정하여 그 변인들의 효과가 APIM을 적용한 경우에도 반복검증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APIM를 이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인들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들로 결혼만족도를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근거로 그 변인들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들의 차이가 역으로 결혼만족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으며, 그들이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자관계 분석방법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리한 점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자관계를 구성하는 연애키플이나 부부의 관계만족도를 이자관계 분석방법으로 분석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키플 모두의 응답을 얻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 낼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으로 여러 대인관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들 중의 하나인 부부, 모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짝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권정혜 (2000).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4), 697-712.  
고재홍 (1997). 우리는 받은 만큼만 주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1(2), 53-75.

고재홍·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1-16.  
김양희 (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미영 (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 영역별 우울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호 (2001). 부부의 자아 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성·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41-64.  
이정순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은·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3), 531-548.  
이중선·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313-330.  
임승락·권정혜 (1998). 우울증상이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2), 17-31.  
장문선·김영환 (2002). 부부 의사소통 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331-347.  
전점구·김교현·조신웅·노병래·손정락 (1994). 다차원 대처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3(1), 114-135.  
전귀연·구순주·박경란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 복지 연구, 제 2권, 1-23.  
하윤필 (2003). 커플관계만족도, 몰입 그리고 결혼할 의도에 관련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Beach, S., Katz, J., Kim, S., & Brody, G. H.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odenmann, G., Kaiser, A., Hahlweg, K., & Fehm-Wolfsdorf, G. (1998). Communication patterns during marital conflict : A crosscultural repl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343-356.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8).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13-721.
- Boyd, L., & Roach, A. J. (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540-551.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pp.31-52). Philadelphia, PA :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Freeman.
- Deal, J. E., Halverson, C. F., & Wampler, K. S. (1999). Parental similarity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 Effects of stereotype simila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87-102.
- Farber, B. (1957). An index of marital integration. *Sociometry*, 20, 117-134.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48.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T. Reis & C. M. Judd(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pp. 451-477).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y, H. H. (1983). Analyzing close relationships. In H. H. Kelley, E. S. Berscheid, A. Christen, J.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Eds.), *Close relationships*(pp. 20-67). NY : Freeman.
- Kenny, D. A. (1988). The analysis of data from two person relationships. In S. W. Duck(ed.), *Handbook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pp. 57-77). London : Wiley.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enny, D. A., & Cook, W. (1998). Partner effect in relationship research :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pp. 233-265). Boston, MA : McGraw-Hill.
- Kenny, D. A., & Nasby, W. (1980). Splitting the rec-

- iprocity cor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49-256.
- Kenny, D. A., & Winquist, L. (2001).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 Design, components, and unit of analysis. In J. Hall & F. Bernieri(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pp. 265-302). Englewood Cliffs NJ : Erlbaum.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 McGraw-Hill.
- Noller, p., & Feeney, J. A. (1998). Communication in early marriage : Responses to conflict, nonverbal accuracy, and conversational patterns.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pp. 11-43).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erson, D. R. (1983). Conflict. In H. H. Kelley, E. S. Berscheid, A. Christen, J.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Eds.), *Close relationships*(pp. 360-396). NY : Freeman.
- Rice, P. F.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n.
- Ridley, C. A., Wilhelm, M. S., & Surra, C. A. (2001). Married couples' conflict response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 517-534.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 Books.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of Behavior Books.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Tedeschi, J. T., Gaes, G. G., & Rivera, A. N. (1977). Aggression and the use coercive power. *Journal of Social Issues*, 33, 101-125.
- Turgeon, L., Julien, E., & Dion, E. (1998). Temporal linkages between wives' pursuit and husbands'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Family Process*, 27, 323-334.
- Yelsma, P. (1984). Functional conflict management in effective marital adjustment. *Communication Quarterly*, 32, 145-180.

##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Young Hwa Park                  Jae 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ere to examine marriage couple's reciprocity of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s, conflict coping behaviors,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s,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Kenny's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1996), there are two effects in dyadic data. One of them is actor effect(the impact a persons aspect or behavior has on his or her own outcome) and another is partner effect(the impact a persons aspect or behavior has on his or her partner's outcome). We did separately calculate two effects from 120 marriage couples' data. Participants were given a series of questionnaires to examine each of coupl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s, conflict coping behavior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first major result is that there was no or weak evidence in the reciprocity of the couples' self-esteem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but couples' reciprocity in the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very high. Second, husband's and wife's self-esteem affected not only self's but also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Also, husband's and wife's constructive communication, criticism, and escaping communication affected not only on self's but also on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Over all, effect size of actor is bigger than that of partner effect on almost measures. Lastly, among uses of conflict coping behaviors, frequency of husband's and wife's conflict ignoring behavior affected negatively on both self's and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Especially husbands' emotion expression behavior affected negatively on wife's satisfaction, but wife's conflict ignoring behavior affected negatively on husbands' satisfaction. Those findings suggest that marriage couple's conflict coping behaviors affect on partner's satisfaction asymmetrically.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reciprocity, actor effect, partner effect, APIM

원고접수 : 2004년 12월 2일  
심사통과 : 2005년 1월 26일